

경북지사·기초단체장 “명분없는 영주댐 방류 결사 반대”

**영주댐 방류저지 결의대회
이철우 지사 등 400명 참석
주민 협의 없는 방류계획 반발
“협의체 통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이철우 경북지사와 영주 인근 기초 자치단체장들까지 영주댐 방류 반대를 강력히 외치고 나섰다.

영주댐 방류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가 15일 오전 10시부터 경북 영주시 평은면 영주댐 주차장에서 열렸다.

결의대회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영주시 기관·단체장과 시·도의원, 권영세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엄태항 봉화군수, 임현성 상주부시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주댐 방류가 예고된 가운데 댐 하류 행사장 인근 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영주댐 수호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장에서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북도

가에는 시민들이 “몸으로라도 방류를 막겠다”며 천막 8개동과 트랙터 등 농기계 6대를 배치해 긴장감을 더했다.

참석자들은 ‘영주시민 무시하는 영주댐 협의체 해체하라’ ‘누구를 위한 방류인가 방류계획 철회하라’ ‘명분없는

일방적 방류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댐 방류 계획에 강력 반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영주댐 용혈폭포 주차장 인근에 마련된 영주댐 수호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장에서 영주댐 방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결의대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을 격려했다

이 지사는 “영주댐 건설은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다. 나라에서 필요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한 것”이라며 “1조4000억 원 들여 만든 댐이 이제 와서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방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장우현 영주시장은 “일방적인 댐 협의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댐 방류는 예측가능한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지난 태풍 때도 경북 북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했다. 이는 상류 영주댐에서 적절하게 안정적인 수위를 유지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예천 5만6000여 주민들은 영주시민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고 격려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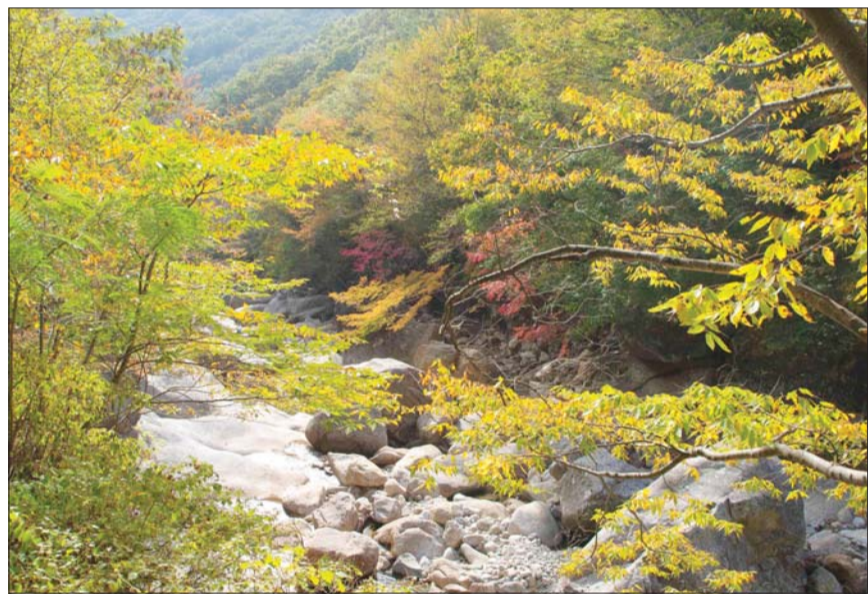
플럼코트 수확 현장. /뉴스1

나주시 플럼코트 소비 활성화 추진

전남 나주시가 살구와 자두를 육종해 만든 신품종 과일 ‘플럼코트’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수출 분야 6개 전문 업체와 손을 맞잡았다.

나주시는 최근 시농업기술센터에서 나주시플럼코트연구회, 커피빈코리아, 아라프룻, 모건푸드, 디마인드, 프레시스, 아롬더 등과 플럼코트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플럼코트는 자두의 새콤함과 살구의 달콤한 향기를 동시에 맞출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이 육종한 신품종 과일로 나주가 주산지이다. /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



단풍으로 물든 지리산 지리산 피아골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전남 구례군은 다음주부터 11월초까지 붉게 물든 단풍을 만끽하기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밝혔다. /순창기 기자 sgi8505@

광양시, 1400억 과산화수소 공장 유치

피앤오케이칼과 투자협약 체결

전남 광양시에 1400억 원이 투자된 과산화수소 제조 공장이 세워질 예정이다.

광양시는 지난 1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피앤오케이칼과 1459억 원 투자하고 57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종국 피앤오케이칼 대표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현복 광양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수·광양 지역 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피앤오케이칼은 포스코케이칼과 OCI가 합작해 설립한 신설법인으로 포스코케이칼의 안정적 원료공급과 OCI의 과산화수소 생산 기술과 경험 등 기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과산화수소 공장을 설립한다.

광양시 태인동 OCI(주) 광양공장



14일 전남 광양시 광양읍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종국(썬피앤오케이칼 대표(가운데), 정현복 광양시장이 1459억 원 상당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인근 4만1529㎡ 부지에 1459억 원을 들여 공장을 짓고, 공장 가동인력 57명을 직접 고용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광양시에 대규모 투자해준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시는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김용환 기자 jijacecom@

신안군-김해시 자매결연 1주년 행사 개최

김대중(DJ)·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과 경남 김해시가 뜻깊은 자매결연 1주년 행사를 가졌다.

신안군은 지난 14일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에서 자매결연 1주년을 기념해 하의도를 ‘김해시의 섬’으로 선포하고 상징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제막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허성근 김해시장, 양시·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상징 조형물은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건전의 스케치 장면을 본떠 철제 조형물로 제작하고 기둥은 화강석으로 마무리했다.

석제 기둥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문구와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따뜻한 글귀와 어록을 새겨 두 대통령의 뜻을 기렸다. /전남=안행주 기자 abcd@

‘부산도서관’ 내달 4일 개관

4개 자료실 11개 특화공간 조성
10만9865권 도서 대출·열람

부산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오는 11월 4일 문을 연다.

부산시는 부산의 대표 도서관인 부산도서관이 11월 4일을 개관일로 정하고 성공적인 개관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상구 덕포동 지하철역 2번 출구 인근에 들어서는 부산도서관은 국비 173억원, 시비 266억원 등 총 439억 원을 들여 건립된다. 연면적 1만6305.44㎡,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건물로 지난 5월 말 준공됐다. 4개 자료실과 11개 특화공간으로 조성되며 10만9865권의 도서와 7589점의 비도서 자료를 비치해 시민들에게 대출과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도서관은 지난 3월 부산광역시 도서관포털, 부산광역시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시행해 왔으며 6월 말 사무실을 부산도서관으로 이전해 자료실 도서 배가, 정보서비스 운영장비 구축 등 개관 막바지 준비에 힘써왔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부산도서관이 11월 4일 개관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사진은 덕포동에 들어서는 부산도서관 전경. /부산시

11월 4일 부산도서관 야외광장에서 개최되는 개관식은 ‘너나들이’라는 주제로 대통령소속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부산시 공공도서관 관장, 도서관 관련 협회 등을 초청해 진행될 예정이다.

개관식과 함께 북 토크콘서트, 작가 초청강의, 달빛영화상영 등 부대 행사를 계획 중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제한된 인원만 사전 신청을 받으며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참여인원을 확대해 접수 인원 중 선착순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재개

체험·숙박비 할인 다음달까지 연장

경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8월 말 잠정 중단됐던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침체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여행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하고자 도내 농촌체험휴양시설 등에 대해 15일부터 체험 및 숙박비를 무료 또는 할인하는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용가능시설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28곳과 치유농장 7곳이다.

경북도는 당초 지난달 15일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힘쓴 대구 경북 의료



지난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인절미 만들기 체험현장. /경북도

진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사업이 마무리 되는 다음달 30일까지 무료이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던 체험 및 숙박비 50% 할인 혜택도 다음달 30일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정보는 다음카페나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북=문봉현 기자

여주시 여순사건 온라인 추모관 개설

여주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제72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을 코로나19로 축소 개최함에 따라 추모의 물결이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온라인 추모관은 여주시 홈페이지 팝업존에 있는 ‘여순사건 온라인 추모관’을 접속 후 여순사건 희생자 영령들에 대한 추모의 글과 함께, 여순사건과 관련된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시는 추모관에 남겨진 의견을 모아 추후 여순사건 지원사업과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김용환 기자 jijacecom@